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2월 18일(금)
--(음력 1월 18일)--
Пятница
18 февраля 2022г.
№ 6 (1197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1일은 국제 모국어의 날이다. 이날은 UN의 유네스코가 지정.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다중언어의 사용, 그리고 각각의 모국어를 존중하자는 뜻에서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가즈프롬뱅크, 사할린에 외과 복합시설 건설 자금지원

사할린에 현대식 외과 복합시설이 건설될 전망이다. 이 보건 시설은 사할린주 정부와 가즈프롬뱅크가 건설한다. 양측은 공공민간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에 합의했다. 관련 서류에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예브게니 로마킨 공공민간파트너십 지역지도자, 로만 파노브 가즈프롬뱅크 제1부사장, 가즈프롬뱅크 파벨 브루스예르 인프라사업 및 공공민간파트너십 제1부사장이 서명했다.

이 기획의 실행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가능성과 수준이 높아지고, 추가 일자리 창출과 사할린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오늘 체결된 계약은 사할린주 병원의 외과 건물에 기술서비스를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사회 분야에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이며, 나는 그 지원에 대한 가즈프롬뱅크에 감사드립니다. 이 협정의 이행은 섬에 대한 첨단 기술 치료의 개발에 자극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는 말했다.

신축 건물에는 현대화 장비들을 갖춘 18

개 부서가 배치된다. 연간 약 3만 건의 다양한 수술을 할 계획이다. 병상은 344개이다. 건물 면적은 3만6천 평방미터이다. 계획된 투자 규모는 88억 루블리이다.

"사할린이 가즈프롬뱅크의 사업의 우선 순위 중 하나이며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할린주 병원 외과건물 건설의 성공 추진은 앞으로 사할린지역 의료기관의 종합적인 현대화 및 선도적 지위를 굳히고, 장기적으로 상호 유익한 협력의 시작이 될 것이며 사할린은 러시아 연방의 극동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 전역에서 선도적 위치에 오를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로만 파노브가 지적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진료소들을 공동건설에 대해 합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두 개의 신규 의료시설, 홈스크와 우글레고르스크에 한 개씩의 시설이 이어질 것이다. 해당 건물들의 건설에 80억 루블리가 할당될 것이다. 해당 협약은 올해 안에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계획안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일반 교육학교와 캠퍼스 공동건설도 포함되어 있다고 사할린주 보도부에서 전했다.

사할린, 올해 도로를 대보수할 예정

유즈노사할린스크-코르사코브 구간 자동차도로에서 "리스트웨니초니" 채석장으로 이어지는 오호츠크행 도로가 보수작업될 것이다. 이 도로의 길이는 5km이다.

"해당 도로는 휴양지와 관광명소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작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해당 도로를 통해 갈 수 있는 관광 명소로는 "라구쉬카(개구리)" 봉우리, 투나이차 및 이즈멘치위에 호수, 오호츠크 해안 등이 있다. 또한 모래, 석재, 건축 자재, 흙 등이 채석장에서 채굴되어 이 도로를 따라 운반되어서 섬 남쪽 지역 건설현장으로 운반된다. 앞으로 이 도로의 다른 구간들에 대한 보수 작업도 계획되어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정비기간 동안 현장 배수시스템을 복원하고 하수구 보수, 침하 제거, 신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이 추진된다. 기반시설로는 인도와 조명이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다. 해당 사업은 국책사업 '안전한 고품질 도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앞서 사할린주는 해당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30억 루블리 이상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1킬로미터 이상의 주요 운송 도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단신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신임 소장으로 박상태 부임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의 임기가 끝나 2022년 2월 21일부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에 새 소장으로 한국 외교부 해외안



전지킴센터의 박상태(1969년생)팀장이 부임. 신임 소장은 1995년에 한국외교부에 임부하고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주스트페테르부르크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주 노르웨이대한민국 대사관 서기관,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서기관, 주 피지대사관 서기관, 한국외교부 팀장 등 역임한 바 있다. 박상태 소장은 모스크바에서 연수한 적도 있고, 러시아에서 장기간 활동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고,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보건부 장관, 진료소방문으로 아침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2월 15일 주정부 회의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매일 진료소들을 방문하라고 사할주보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보건부 장관은 오전에 진료소를 방문하여 현장 사람들과 소통하고 직원 브리핑을 하면서 민원이 적게 들어올 때까지 업무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통화 횟수가 급증하면서 1300 라인은 현재 하루 10,000~12,000여명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 통화량이 많은 시간대에 교환원의 응답 대기 시간은 5~7분이다. 이번 주에는 기술개선을 통해 대기 시간을 1분 30초에서 2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1300 라인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왕진, 화상 상담, 치과 의사 치료 예약 등을 요청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3D 모델링 올림피아드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IT-파크를 기반으로 전러시아 올림피아드 지역 제1회 3D모델링 예선이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포로나이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티몴스코예, 노글리키 구역의 42개 팀, 84명 학생들이 참가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청소년창작회관이다.

1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이틀 동안 경쟁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창의적으로 과제를 실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차 지역 예선에서 승리한 5~11학년 학생들은 전러시아 어린이 센터 '스메나'(아나파)에서 열리는 제7회 3D기술의 전러시아 경시대회에 사할린 지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고 시청에서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어릴 적부터 내무서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내무관리국의 사이토 안드레이 중령

유즈노사할린스크 내무관리국 지구 경찰관 부서의 차장 사이토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중령은 어렸을 때부터 내무서(현 경찰)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요즘에는 그런 꿈을 어릴 때부터 꾸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1978년생인 그는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시 출생이고 ¼는 한민족 혈통이다. 할머니 일본인, 할아버지 한인, 어머니가 한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문화를 많이 접하기도 했지만 러시아 동포 3세로서 완전한 러시아 국민이다.

올해로 그가 경찰에서 근무한 지 21년이 되었다.

2살때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살아온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사할린국립대에 입학해 역사학을 전공했다. 대학을 졸업하자 1년 군대 복무를 했다. 복무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경찰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경찰관 일을 하고 싶었다 한다. 첫 근무는 교통경찰관이었다. 경찰에 들어가면서 전문적으로 제2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내무부 산하 국등법률대학(사할린 지부)에 입학했다. 그때가 2001년이었다. 2001년은 사이토 안드레이에게는 운명적인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생의 직업을 선택했고 대학 입학도 결혼도, 딸도 낳았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니 많이 바빠졌지만 행복하고 삶이 흥미로워졌다.

2002년에 그는 경찰 부서를 바꾸었다. 라이선스허가증 발급과 관련 업무였다. 나중에는 이 부서도 옮겼고 상급 지구 경찰관으로 일하였다. 도시의 정해진 지구를 맡은 경찰관이라 할 수 있다. 작년 3월에 중령으로 진급하여 이 부서의 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몇 문장에 안 되는 경력으로 경찰관 업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 담을 수는 없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1년은 1년반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12년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큰 진급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12년만 일하고 경찰을 그만둔다. 12년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저랑 같은 해에 경찰에 입사한 주위 사람 중에서 저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버티기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안드레이가 말했다.

그의 하루는 아침 7시 45-50분 출근으로 시작한다. 지구 담당 경찰관들이 내무관리국을 9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일이 많다. 우선 주야, 밤 사건정보문을 파악해 무엇에 주의해야 하고, 경찰관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한다. 이를 매일 있는 아침 회의에서 보고하고 경찰관들이 유의해야 하는 상황을 상기시킨다. 매일 경찰관들에게 경찰복, 무기 등을 점검하



고, 훈시하고, 내는 것도 사이토 중령의 책임이다.

그는 지구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일을 잘 알고 있다. 자기가 직접 이런 일을 오랫동안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동네 사람들과의 소통이 많이 중요하다. 실제로 예방차원의 일이 많다. 지구 담당 경찰관(한국 파출소 경찰관과 업무가 비슷함)은 동네에 등록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의 근황도 알아야 하고 그의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 범죄자가 탈출하고 이 동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순찰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술을 마셔 가정폭행사건이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 동네 사

람들의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범죄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싸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때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잘 알아야 한다.

안드레이는 이 부서에서 일하려면 계속 공부 필요하다고 한다.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개정 법도 계속 연구해야 한다. 그의 부서에는 지구 담당 경찰관 46명이 일해야 하는데 지구 현장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부족해 11명이 모자란다. 실제로는 이 숫자가 더 많다. 휴가 나간 사람, 앓고 있는 사람... 특히 요즘 오미크론과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퍼지는 가운데 경찰관 중에도 감염자가 많다. 그래서 파트너들의 몫까지 해야 하니 현장에 나가는 경찰관 업무가 확장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퇴근은 주로 밤 22시 쯤이다. 사이토 중령도 거의 매일 그렇게 퇴근한다. 밤 8시에 본부로 돌아온 경찰관들에게서 보고를 받고 무기 등도 받는다. 경찰의 수사, 강력팀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 지구 경찰관이다.

안드레이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가 하는 경찰 일이 마음에 든다. 자신의 필요성도 느끼고 사회 안전에 될

가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좀 더 뜨겁게 하는 듯하다.

체력단련을 위해 경찰관들은 의무적으로 1주일에 한번은 자기 방어 기술, 백병전술 훈련이 있고 총기 사용 연습도 하고 있다.

안드레이는 이중적인 사람을 싫어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

그는 가족이 아주 소중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특히 함께 야외를 즐기는 것, 여행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긴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일 중독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는 함께 자전거 타며 시간을 즐기고, 학업 때문에 떨어져 있는 국등의대 3학년인 딸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안드레이는 자기가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한다. 잠깐이지만, 인터뷰하면서 필자는 사이토 안드레이가 책임감이 높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느껴졌다.

2월 23일은 조국 수호자의 날이다. 이날 우리는 수호자의 개념을 떠나서 보통 모든 남성을 축하한다. 군대 복무도 하고 현재는 사회안전을 지키는 사이토 안드레이 중령에게 행운과 하는 일에서 성과와 대령 진급을 기원하고 싶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발렌타인 데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얼음 그림 전시회가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에 얼음꽃이 다시 피었다. 발렌타인 데이를 기념하는 34개의 독특한 작품들이 이전 유리파빌리온 야외에 전시되었다. 전시회 주제는 "사할린에 대한 사랑"이다.

사할린의 유명한 이케바나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작품들이다. 주요 플로리스트 알렉산드라 쿠드랴쇼와는 모두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장작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얼음 수정 예술 전시회를 엽니다. 가장 단순한 것들로 만들어진 놀라운 아름다움을 즐겨보세요. 사할린의 식물, 채소, 천연자재가 특별한 사랑과 함께 얼음 속에 담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들은 깨지기 쉬우니 작품들을 조심스레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품들이 모두를 더 오래 기쁘게 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매우 폭발적인 상상력을 가진 알렉산드라 쿠드랴쇼와가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런 전시회는 물감이나 여러 색깔의 얼음 등 어떤 재료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레 내리는 눈, 자연이 선사한 솔방울, 잔잔한 나무가지, 바람에 날려가지 않은 씨앗, 새들이 먹지 않은 열매 등이 장식품이다. 그것을 마음이 가는 대로 펼쳐놓고, 사진 찍는 것을 잊지 말고, 사진을 통해 여러분의 친척,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세요.

Ко Дню всех влюбленн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ледяных картин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новь расцвели ледяные цветы. Сразу 34 уникальных композиции в честь Дня влюбленных разместили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в бывшем стеклянном павильоне. Выставка так и называется «С любовью к Сахалину».

Над шедеврами кропотливо трудились ученики очень известной на острове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икебана согецу. Всех на оригинальный творческий поиск подвигла главный флорист Алексан-

дра Кудряшова.

«Сегодня мы открываем выставку нашего ледяного хруст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Любуйтесь, наслаждайтесь необыкновенной красотой из самых простых вещей. В льдинках с особой любовью заточены сахалинские растения, овощи, прир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Эта красота очень хрупкая, поэтому мы просим вас относиться к нашим картинам очень бережно, не ломать. Пусть они подольше радуют всех!», — обратилась к землякам человек с очень буйной фантазией Александра Кудряшова.

Подобный лэнд-арт, для которого не нужно ничего заранее готовить — ни красок, ни разноцветных льдинок, можно устроить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о. Подойдут снег, и то, что дает природа: шишки, веточки, семена, которые не облетели, ягоды, которые не склевали птицы. Разложите их так, как подсказывает душа, и не забудьте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порадовать снимками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5천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러시아 스키 트랙"에 참가

2월 12일, 사할린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40회 전러시아 스키 경주에 참가했다. 스키 경주는 전통적으로 주내 모든 구역들에서 개최됐다. 주내에서 약 5천 명이 참여했는데 그중 최연소자는 3살이고, 최고령자의 연령은 80세였다.

대규모 스키 경주는 아니외구역 트로이츠히코예마를 스키장에서 열렸는데 1,300 여 명이 경쟁했다.

올해 "러시아 스키 트랙" 참가자들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200m에서 10km까지 다양한 트랙을 극복해야 했다. 올해에는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트랙도 준비됐다. 의사의 참가진단서만 있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노년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들의 사전 등록을 도왔다. 다자녀 가족,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경주에 참가했다.

10km 코스에서 남자 중 야코브 레마노브가, 여자 중 엘리자베타 푸네펬코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두 선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이다.

대회 우승자 및 입상자들은 상장과 메달뿐만 아니라 행사 파트너들로부터 선물도 받았다. 스포츠명절행사조직자들은 대회 참가자 및 방문객들을 위해 오락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한 전통에 따라 모든 손님, 관객들은 필드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고 지방정부의 보도부에서 전했다.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Лыжне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12февраля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40-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лыжной гонке. Старты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ел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региона. На лыжню вышли около 5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самому младшему из которых 3 года, а старшему — 80 лет.

Самый массовый забег состоялся на лыжной базе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где посоревновались более 1300 участ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 "Лыжни России"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различные отрезк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и пола — от 200 метров до 10 километров. Среди нововведений — специальные дистанции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тартах мог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при наличии допуска от вра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ижения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али проводить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участников. К гонк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студенты и добровольцы.

На дистанции 10 километров самым быстрым среди мужчин оказался Яков Леманов, у женщин победила Елизавета Пуненкова. Оба спортсмена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гонки получили не только дипломы и медали, но и подарки от партне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Также по традиции каждый мог отведать блюда полевой кухн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엘친' 도서관 정보자원의 원격 아동센터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관

'엘친' 도서관의 전자열람실 개관식이 사할린주아동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2개의 주도서관 즉 성인 및 어린이 도서관장들이 왈렌치나 말리셰와와 옥산나 코르니엔코가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거행했다.

"새로운 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러시아의 역사를 보다 완벽하게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현대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역사적인 정통 문서, 고대 원고, 희귀한 책, 비디오 연대기에 익숙해 질 수 있게 합니다."라고 사할린 주 일반과학 도서관 왈렌치나 말리셰와 관장이 말했다

(8면에 계속)

국내 시민단체 및 동포단체와 해외동포, 언론단체 등 총 90개 단체는 2월 16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동포시민연대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각 정당 의원들도 참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의원, 김경협의원, 임종성의원, 국민의힘 김석기의원, 양항자의원 초청, 이광재 외 통일위원장:영상축사)



재외동포기본법은 1997년 제정구의원의 발의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폐기되었다. 현 20대 국회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안 3개 재외국민기본법이 발의되어 있고,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2003년~4년에도 시민사회에서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 해외 사례들도 검토하면서 시민사회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

KIN(지구총동포연대) 최상구 사무국장은 "재외동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고, 동포들의 역사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 거주국 현지화 중심의 재외동포정책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현재 국회의 논의 내용이 시민사회와 동포사회의 바람을 잘 담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주장했다.

온라인 서명 링크 :

한글 <https://forms.gle/WanfXMDaGPZVtw168>

러시아어 <https://forms.gle/stafV444USk9pttV6>

해외동포 지지선언 영상 https://youtu.be/wTX9oBg_UCE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22만6162명 확정

18대 대선 대비 1.7% 증가, 19대 대선 대비 23.2% 감소 재외투표는 2월 23~28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78개 재외공관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유권자 수가 총 22만6,162명(국외부재자 19만 6,980명, 재외선거인 2만9,182명)으로 확정됐다고 2월 8일 밝혔다.

중앙선거위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2022.1.8.)이 완료된 직후인 1월 10일, 전체 재외유권자 수가 23만1,3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재외유권자 수는 앞서 발표한 잠정치에 비해 5천명 가량 적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명부등재자수 22만 2,389명에 비해 1.7% 증가했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29만4,633명에 비해 23.2% 감소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11만81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49%를 차지했다. 미주 7만 3,381명, 유럽 3만5,591명이 뒤를 이어, 이들 3개 대륙에 분포하는 재외유권자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3,073명, 중국 2만9,827명, 일본 2만8,8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다만, 투표시간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7면에 계속)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풍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풍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풍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폭풍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폭풍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백석의 서정이 일품입니다. 가난한 시적 화자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한다고 해서 눈이 내릴 리 없잖아요. 시인의 시선은 역시 다릅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죠. 오히려 눈이 그것도 '폭풍' 내릴 거라며 시인의 상상 속으로 안내합니다. 그것도 쓸쓸히 앉아 밤새도록 소주를 마시면서. 시인이 만든 서정의 세계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건 언제나 '현실'이니까요. '나타샤'와 와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늘 문제잖아요. 현실은 참으로 놀라우리만치 기대를 비껴 가는 습성을 지녔잖아요. 코로나의 폐해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재화를 넉넉히 쌓으신 분들이야 그리 큰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얼마 전 발표된 물가지수를 보니 대한민국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저런 면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글썽요.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 따다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빵값 지수를 놓고 볼 때 이 부분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값이 그렇게도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거죠. 커피 값도 1등. 그새 한국은 빵값이나 커피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린 거죠. '우째 이런 걸 1등을 다 했노!' 야단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훌륭한 백석의 시를 음미한다는 걸, 제가 좀 멀리 왔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다들 각자의 소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떠올라서요. 모두들 나타샤를 기다리며, 그것도 쓸쓸히."



서울에서 허진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초국가 이주의 증가에 따라 대한민국은 지금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역사적 어려움 속에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이다.

조국은 그들을 제대로 품어내지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해 왔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비롯해 외환위기 극복은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미디어 각 분야에서 활발한 네트워크와 공공 외교로 조국 발전에 기여했다. 재외동포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일찍이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 세계의 주요 디아스포라 배출국들은 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앞서서 펼쳐 왔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뒤떨어진 동포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적 동포가 100만 명에 이른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국적 동포들은 모국으로부터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속 어려움은 물론 여러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기구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밀바탕 역시 부실하다.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물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최근의 시대 변화와 지역별 동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 모든 어려움은 재외동포 정책의 큰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조차 없어서 생긴 문제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기본 권리를 밝히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맡을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가 높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국회의 분발과 동참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22년 2월 16일

(가칭)재외동포기본법제정 100만인 동포시민연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ТО «АНТОК» объявляет о начале приема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м молодежном форуме «Young Generation Forum — 2022» в Корее

НТО «АНТОК» объявляет о начале приема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м молодежном форуме «Young Generation Forum — 2022» (YGF-2022).

YGF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с 2002 г. и объединяет студентов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со всего мира. Форум —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роникнуться научным прогрессом 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Кореи, но и вживую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культуре, что весьма важно дл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в третьем и более поколениях. Отзывы о Форуме от участников прошлых лет смотрите здесь — <https://aksts.ru/category/ygf/>

Дата: 1–6 августа 2022 г.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еу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ланируемое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110 чел., в т.ч. 40 чел.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70 —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включая 7 чел. из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 Коре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КОФСТ) <http://www.ultari.org>.

Программа YGF включает встречи с ведущими учеными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реи,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тренинги, лекции, обсуждения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стоящих перед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Требования к участникам:

- студенты бакалавриата, обучающиеся по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ым или инженер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дготовки
- год рождения не ранее 1992
- владение разговорным английским или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 этничность — корейцем должен быть хотя бы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 гражданство — РФ
- наличие заграничного паспорта на момент подачи заявки со сроком окончания действия не ранее 01.02.2023
- финансо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ки авиабилетов за свой счет с последующей компенсацией.

Обращаем внимание, что формат программы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или онлайн-программу, если ситуация в мире с COVID-19 не улучшится (окончательно формат проведения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в июне).

Участие в YGF бесплатное. Кроме того, Организаторы оплачивают авиабилет в обе стороны в предела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Для участия в отборочном конкурсе необходимо прислать:

1. Заявку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й форме (см. Приложение).

В заявке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а быть отра-

жена информация, подтверждающая соответствие кандидата установл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а также:

-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телефон, эл. почта);
- гражданство;
- название вуза, факультет, специализация;
- место работ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и наличии), р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новные обязанности.

2. Резюме

В резюме рекомендуется указывать след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 опыт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 наличие наград, дипломов, грамот с приложением скан-копий;
- прочие достижения с приложением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Отдельная квота выделена лицам из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сиротам, детям, воспитываемым только одним из родителей, приемным детям. Если Вы входите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ечень, сообщите об этом в Вашей заявке, приложив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документ.

· Впервые в 2022 г. кандидаты, подавшие заявку на YGF,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на стажировку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Global Research Internship».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познакомить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с системой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 пройт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стажировку в одном из ведущих вузов Кореи.

Период стажировки: 1 месяц (на выбор: 01.07.22 – 31.07.2022 до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YGF или 08.08.22 -07.09.2022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YGF).

Организаторы оплачивают авиабилет в обе стороны в предела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оформление визы, проживание, страховку,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типендия 1,000,000 KRW.

Для участия в отборе UST Global Research Internship необходимо прислать анкету (см. Приложение).

Заявки присылать на адрес: AKSTSRussia@gmail.com. На этот же адрес Вы можете направлять вопросы касательно YGF.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1 марта 2022 г. включительн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письмо с образцами заявок 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Форума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НТОК <https://aksts.ru/2022/02/09/order-taking-ygf-2022/>

Обратите внимание, что формат программы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или онлайн-программу, если ситуация в мире с COVID-19 не улучшится.

Комитет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молодеж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ТО «АНТОК»

на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м молодежном форуме «Young Professional Forum — 2022» в Корее

НТО «АНТОК» объявляет о начале приема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м молодежном форуме «Young Professional Forum — 2022» (YPF-2022).

YPF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с 2018 г. и собирает студентов магистратуры, аспирантов и молодых ученых со всего мира. Знакомьтесь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участники налаживают и развивают связи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Отзывы о Форуме от участников прошлых лет смотрите здесь — <https://aksts.ru/category/ypf/>

Дата: 1 – 6 августа 2022 года.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еу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ланируемое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60 чел., в т.ч. 30 чел.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30 —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включая 3 чел. из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 Коре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КОФСТ) www.ultari.org.

Программа YPF включает встречи с ведущими учеными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реи,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тренинги, лекции, обсуждения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стоящих перед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Требования к участникам:

- студенты магистратуры, аспиранты или кандидаты наук; кандидаты наук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при условии защиты диссертации не ранее 2016 г.
- год рождения не ранее 1 января 1987 г.
- владение разговорным английским или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 этничность — корейцем должен быть хотя бы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 гражданство — РФ
- наличие заграничного паспорта на момент подачи заявки со сроком окончания действия не ранее 01.02.2023
- финансо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ки авиабилетов за свой счет с последующей компенсацией.

Обращаем внимание, что формат программы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или онлайн-программу, если ситуация в мире с COVID-19 не улучшится (окончательно формат проведения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в июне).

Участие в YPF бесплатное. Кроме того, Организаторы оплачивают авиабилет в обе стороны в предела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Впервые в 2022 г. кандидаты, подавшие заявку на YPF,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на стажировку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Global Research Internship».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познакомить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с системой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 пройт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стажировку в одном из ведущих вузов Кореи.

Период стажировки: 1 месяц (на выбор: 01.07.22 – 31.07.2022 до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YPF или 08.08.22 -07.09.2022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YPF).

Организаторы оплачивают авиабилет в обе стороны в предела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оформление визы, проживание, страховку,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типендия 1,000,000 KRW.

Для участия в отборе UST Global Research Internship необходимо прислать анкету. Форму анкеты см. в приложении на сайте <https://aksts.ru/2022/02/09/order-taking-ypf-2022/>

Заявку с резюме на YGF и анкету на стажировку присылать на адрес: AKSTSRussia@gmail.com. На этот же адрес Вы можете направлять вопросы касательно YPF и UST Global Research Internship.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1 марта 2022 г. включительно**.

Комитет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молодеж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ТО «АНТО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Сеула станет удобнее

К 2025 году все станции метро в Сеуле будут оборудованы лифтами, а городские автобусы будут заменены на низкопольные. Это будет сделано в рамках мер столич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комфортного передвижени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февраль 2022 года, 93,6% станций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оснащены лифт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к 2025 году на всех 326 станциях будет как минимум один лифт. Что касается низкопольных городских автобусов,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их число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до 511 единиц, а к 2025 году на всех маршрутах будут курсировать 6.564 автобуса с низким полом. Местные автобусы, курсирующие в пределах одного района, также будут заменены на низкопольные.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ят междугородние автобусы и маршруты, на которых курсирование низкопольных автобусов невозможно из-за недостаточной ширины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Кроме того, штат водителей специальных такси для инвалидов-колясочников будет расширен до 100 человек.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истема QR-кодов для отслеживания заражённых COVID-19 может быть отмене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кращ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истемы QR-кодов для отслеживания заражённых COVID-19.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начальник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Чон Ын Гён, которая 14 февраля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специальной телепрограмме KBS. Однако система QR-кодов, подтверждающая статус вакцинации, должна быть сохранена, - добавила он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Бу Гён,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той же программе, пообещал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доработать детали смягчения правил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н напомнил о том, что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спытывают финансовые трудности от жёстких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режде чем принять какое-либо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консультируется с экспертами, чтобы гарантировать, что пересмотренные пра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е ускоря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Текущие ограничения, включая запрет на личные встречи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шести человек, действуют до 20 февраля. С 15 февраля наборы для экспресс-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антигены COVID-19 доступны в продаже по 6 тыс. вон (5 долларов) за набор. Между тем, за сутки 14 февраля в стране подтверждены 57.177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ланируют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начать вакцинацию четвертой дозой препаратов против COVID-19 людей со слабой иммунной системой и находящихся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В 2021 году возросло потребление иностранцами продукции Халлю

В 2021 году возросло потребление иностранцами продукц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8.500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контентом, проведённого в 18 странах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фондо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составляет 27,4% всех культурных продуктов, на которые респонденты потратили деньг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о на 5,9%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В структуре потребления преоблад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телесериалы и одежда. Любимым телесериалом является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а любимым кинофильмом - «Паразиты». Любимым исполнителем названа группа BTS, а любимым актёром - Ли Мин Хо.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Бер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10 февраля в Берлине стартовал 72-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был показан фильм «Петер фон Кант» француз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Франсуа Озона.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т в кинозалах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но с сокращё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и соблюдением санитарных мер.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ежеднев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вирус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отмена банкетов. В главную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вошли 18 картин из 15 стран. К участию допускаются полнометражные фильмы,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показаны на дру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ях и не выходили в прокат.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 новая рабо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Фильм писательницы». Картины Хон Сан Су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Берлин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В 2020 году его фильм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убежала» был удостоен приза «Серебряный медведь»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а в 2021 году фильм «Вступление» получил «Серебряного медведя» за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Samsung Electronics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рейтинге самых желанны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вновь возглавила рейтинг самых желанны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богнав прошлогоднего лидера - Какао Corporation. 20,7% из 2.264 южнокорейцев, ищущих работу, которые были опрошены порталом Saramin, заявили, что хотят работать в Samsung Electronics. Какао Corporation заняла на этот раз второе место. Там хотят работать 12,6% опрошенных.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Naver - 8,2%, далее следуют Hyundai Motor, CJ CheilJedang, Корейская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KEPCO) и LG Electronics.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причине выбора, 25,7%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вали высокие зарплаты, а 19,6% -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другие льготы.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Гильдии продюсеров США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вошёл в список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ремию Гильдии продюсеров США (PGA), которая присуждается за выдающиеся достижения в кино- и телепроизводстве.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состоится 19 мар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включён в список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ремию имени Нормана Фелтона за выдающееся продюсирование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сериала на телевидении. Он будет конкурировать с такими сериалами как «Рассказ служанки», «Утреннее шоу», «Наследники» и «Йеллоустоун».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стал первым шоу н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номинированным на награду PGA.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официально стартовала президентская предвыборная камп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лен старт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финалом которой станет избрание ново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уже через три недели. Как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Коре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хотя формально претендентов много, но реально все решится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двух человек,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ляет доминир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лагеря страны - демократов и консерваторов.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вершился двухдневный период регистрации кандидатов, которые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побороться з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огласно конституции РК, срок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составляет пять лет, причем один и тот же человек имеет право избираться только один раз без права переизбрания.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нынешний достаточно популярный лидер РК Мун Чжэ Ин совсем скоро сложит свои полномочия. В этой связи абсолютно точно в Корее появится новый лидер. Борьбаться за право стать президентом на 20-х выборах изъявили желание сразу 11 человек. Во вторник, 15 февраля, был дан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рт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Хотя формальности с регистрациями кандидатов и началом агитационной кампании только-только завершены, но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было известно, кто именно борется з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Из 11 офи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получить более пяти процентов голосов избирателей имеют ре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лишь четверо, потому имеет смысл подробнее рассказать лишь именно о них, подразумевая, что остальные семеро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играют роль статистов и часто в опросни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ро них даже и не спрашивают.

Основные претенденты

История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порой напоминает лихо закрученный детектив, если не триллер, где вчерашние враги через мгновение становятся друзьями, а, казалось, самые дружные соратник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принципиальных противников.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такой интриги и на этот раз.

Как мы уже отмечали, реально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етендуют двое, и один из них - бывший губернатор столичной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 58-летний Ли Чжэ Мен, который выиграл "праймериз" и был выдвинут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 этой же партии принадлежит нынешний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Особенностью взглядов этого лагеря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ддерживая тези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льянса с США (против чего сейчас в РК не выступает ни одна более-менее значим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ла), при этом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сохранять более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ую позицию, не стремясь во всем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шаться с Вашингтоном. Демократы выступают за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а также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Пекином и Россией, но при этом достаточно критически настроены к Японии.

Главный противник Ли -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экс-генпрокурор РК 61-летний Юн Сок Ель. Это уже лагерь принципиальных противников демократов - консерваторов. Последние выступают за безусловное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 США, готовы жестк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присоединяться к антикитайскому курсу Вашингтона. Учитывая сегодняшние отношения США с Россией,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при Юне Южная Корея будет активнее следовать антироссийским акциям США, чем это было при том же Мун Чжэ Ин, хотя сам Юн заявлял о

готовности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осквой и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любит Пушкина и Достоевского.

Юн Сок Ель - это как раз тот случай перехода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лагерь. Сейчас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партию, из которой вышли президенты Ли Мен Бак и Пак Кын Хе, но именно Юн сыграл немалую роль в том, чтобы Ли и Пак были признаны виновными в различных нарушениях закона и оказались за решеткой. А сейчас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как раз лагерь союзников Ли и Пак - такова ирония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Юн создал себе политический капитал на том, что будучи назначенн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на пост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достаточно скоро развернул атаку на окру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добившись снятия с постов двух министров юстиции. Юн, кроме того, в недавнем интервью за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активно добиватьс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нарушений среди окружения Мун Чжэ Ина, чем спровоц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а на серию критических реплик.

Третьим претендентом является глава друг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силы -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 59-летний Ан Чхоль Су. Он успешный бизнесмен и имеет прозвище "корейский Касперский". Его основной бизнес связан с IT-решениями в сфере компьюте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 имеет репутацию "продвинутого" и современного технократ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позиция не такая крайняя, как у консерваторов, но по взглядам он, конечно же, куда ближе к консерваторам, чем к демократам.

Заключительная фигура, чье имя стоит упомянуть -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огрессивной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62-летняя Сим Сан Чжон. Это уже самое левое крыло более-менее влиятель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Южной Кореи, выражает интересы рабочих движений. Ее взгляды ближе к демократам, чем к консерваторам, но куда более радикальны.

Текущ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расклад

Хотя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выборная кампания началась только 15 февраля, но в реальности она уже давно в полном разгаре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основная четверка претендентов провела два раунда публичных теледебатов, за которыми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ли мног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 время кампании кандидаты вылили друг на друга ушат грязи, развернув активную "войну компроматов", от которой устали многие избиратели. Основная борьба идет между демократом Ли Чжэ Меном и консерватором Юн Сок Елем, по поводу каждого из которых есть подозрения в разного рода нарушениях закона, что, впрочем, чаще всего не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хотя бывают и исключения. Слабым звеном как Юна, так и Ли оказались их супруги - Ким Гон Хи и Ким Хе Ген, у каждой из которых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тивники мужей смогли обнаружить немало "скелетов в шкафах". В итоге, как сами жены, так и Ли Чжэ Мен и Юн Сок Ель,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ублично извинялись за прошлые ошибки и "грешки".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а кампания взаимных обвинений продолжится вплоть до самого дня голосования, что заставило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прийти к банальному выводу: "Никому из политиков верить нельзя". Даже если это и так, то других претендентов уже нет.

Кто будет но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В отличие от предыдущи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которые в Корее в 2017 году проводились досрочно, после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у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ую с поста смела волна народного негодования, и когда в победе находившихся тогда в оппозиции демократов никто не сомневался, сейчас все сложне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будет инспектировать поликлиники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до продолжить практику ездить по утрам по поликлиникам. Общайтесь с людьми на месте, проводите инструктаж персонала, разъясн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пик обращений не пойдет на спад,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зко возросшего числа обращений на линию 1-300, в день сейчас поступает 10-12 тысяч звонков,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ответа оператора в часы пик составляет сейчас 5-7 минут.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кратить его до полутора-двух минут за счет технических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й.

Ка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большинство обращающихся на линию 1-300 желают вызвать врача на дом, получить видеоконсультацию специалиста или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в том числе к стоматологу.

– За неделю нам уд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ь уровень сервиса при записи на прием к стоматологу. Мы оптимизировали расписание и сняли проблему с отсутствием талонов. В частности, были вопросы по работе кабинета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в поликлинике № 2 вследствие отсутствия врачей.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ручил привлечь еще дву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расшир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е маршрутизации пациентов, чтобы здоровые и заболевшие люди не пересекались, и налаживани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формата оформления больничных листов.

Напомним, в ходе посещения ряда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 Владимира Кузнецова появились нарекания к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В частности, были вопросы по работе кабинета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в поликлинике № 2 вследствие отсутствия врачей.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ручил привлечь еще дву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расшир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е маршрутизации пациентов, чтобы здоровые и заболевшие люди не пересекались, и налаживани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формата оформления больничных листов.

Пациент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видео- или аудиоконсультацию врача, не выходя из дома. В цифровой системе БАРС доступны все результаты обследований. Специалист оценивает состояние больного, назначает или корректирует лечение, открывает и закрывает листок временной не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и. Электронный больничный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падает к работодателю. Если пациент плохо себя чувствует, и ему необходима личн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специалиста, к человеку на дом направляют медицинскую бригаду.

Отметим, с 1 февраля видеоконсульт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лучили почти 3 тысячи пациентов, более 1600 были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ны по телефону.

Водородный кластер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обрел конкретные очертания

Завершено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проек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водорода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позволит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ерейти к следующим этапам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и изыскательским работ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дород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танет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созд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заложит основы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острове эффективной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водорода на внешние рынки и локальным потребителям в секторе энергетики, транспорта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аботы по проекту ведутся в рамках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одписанного АО «Русатом Оверсиз», Air Liquide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апреле 2021 года. Благодаря развитию новой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егионе будут созданы высокооплачи-

ваем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улучшится экология, бюджет области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 Проект производства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водор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методом паровой конверсии метана с применением экологич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лавливания выбросов CO2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Вместе с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мы завершили первый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й этап будущего комплекса.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проект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и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его успешную реализацию,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видим, что многие компании из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уделяю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водородной экономики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импорте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водорода из России. Мы уже ведем переговоры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в Япон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 запус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водорода с 2025 года, – сообщил президент АО «Русатом Оверсиз» Евгений Пакерманов.

Реализация таки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проектов должна поддерживаться развитием научн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базы, опережающей подготовкой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формируется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перспективным энергетическим системам.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с ГАЗПРОМ ВНИИГАЗ, университетом нефти и газа имени Губкина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грамм в области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Подготовка студ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тартова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остребованную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туристов дорогу

Работы выполнят на охотской трассе от авто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до поворота на карьер «Лиственный». Протяженность участка – 5 километров.

–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ровести работы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поскольку дорога ведет к туристическим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и любимым местам отдыха сахалинцев. В их числе –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озера Тунайча и Изменчивое, охотское побережье. Кроме того, по этой трассе идет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а песка, щебня, 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амня и грунта, которые добывают в наших карьерах и доставляют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и южны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а. Ремонт других участков этой дороги планируется в следующие годы,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ход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на участке восстановят систему водоотвода,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одопропускные трубы, устроят просадки, уложат новое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е покрытие. Н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м объекте обустроят автобусные остановки с тротуарами и освещением. Работы пройду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Ране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на реализацию нацпроекта более 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Это позволит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более 21 километра транспортных артерий.

В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вошли дороги, которыми каждый день пользуются тысячи водителей и пассажиров. В их числе – участок Лиственный – Охотское до поворота на карьер «Лиственный», улица Авиационная от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до улицы Ленина, улица Зеленая в с.Березняки, улица Комарова от улицы Дружбы до улицы 2-я Набережная.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и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селе Новосибирское,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объез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шатся работы на долгожданном дл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частке по улице Украинская.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и приведению в норма-

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Кострома в селе Костромское.

Напомним, в январ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ратился к вице-премьер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преду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ю Трутневу с просьбой оказа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орог на островах.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сейчас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дороге по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Сахалина.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автодором е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до 2025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треб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 к новым жилым микрорайонам, которых в регионе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ьше.

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партии отходов из пластика и картона отправили с Сахалина на материк

12 тонн пластиковых бутылок и 20 тонн картона отправи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 Хабаровск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Они не будут захоронены на полигонах в Корсаков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внедрению в регионе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мусора,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 это движение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и часть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по реализаци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ую мы проводи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делаем всё, чтобы окружающая нас среда была чищ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картона образуется от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и предприятий. Вся поступающая к ним продукция упакована в картонные коробки, поэтому они считаются основными отходообразователями этого вида материалов. Кроме того, часть сырья отбирают сотрудники мусоросортировочной станции из всего объема смешанных отходов.

По словам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ОО «Новый город» Владимира Помыткина, сырье, размещенное в евроконтейнерах, загрязняется, намокает, попадает в категорию брака и захоранивается на полигон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ажно складировать его отдельно.

– Мы предлагаем жителям Корсакова, в случае если у них появляется картон, складировать его на контейнерных площадках в отсеке для крупногабаритных отходов. В четверг и воскресенье мы отправляем отдельную машину и собираем весь картон с площадок у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Чтобы материалы не загрязнялись, их желательно складировать накануне и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дни вывоза, –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Помыткин.

Внедрение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о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июле 2022 года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появятся в Ани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в сентябре – в осталь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На 2023 год останется оснастить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сти более 2500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 Благодар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ют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отходов. Рост глубины переработки возможен только при условии вовл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в этот проект,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накопления пластиковой и стеклянной тары, железных и алюминиевых банок. Отходы, собранны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 раздельному сбору мусора, поступают еженедельно на корсаковскую мусоросортировочную станцию. Там их делят на фракции уж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для обработки, прессовки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в брикеты. После накопления определенного объема отходы отправляют на матери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Южной Корее официально стартовала президентская предвыборная кампани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За пять лет консерваторы смогли оправиться от страшного удара, нанесенного импичментом Пак Кын Хе, перегруппировались, сменили имидж, избрали самого молодого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36 лет) лидера партии и вернули себе лидерство, опередив демократов, к которым у народа накопилось немало претензий за годы правления Мун Чжэ Ина.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им опроса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немного вперед вырвался как раз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нсерваторов Юн Сок Ель - у него почти 39 процентов, но Ли Чжэ Мен отстает незначительно - 33 процента. Далее уже с большим отрывом идут Ан Чхоль Су - чуть более восьми процентов - и Сим Сан Чжон - три процента. Цифры наглядно показывают, кто главные претенденты.

Если все четверо дойду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до выборов, 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едсказать победителя будет очень сложно, а все в итоге может решить перевес в пару-тройку процентов, когда чашу весов в пользу одного или другого кандидата может качнуть достаточно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компромат, обнародованный в нужный момент.

Однако в воскресенье, 13 февраля, Ан Чхоль Су публично обратился к Юн Сок Елю, призвав объединиться и

выдвинуть единого кандидата от оппозиции. Ан при этом не теряет надежды на президентство, так как настаивает на назначении кандидата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где, как он считает, сможет победить Юн. Экс-генпрокурор же,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в идею в принципе, призвал Ана просто "сделать последний решительный шаг", то есть снять свою кандидатуру в пользу главного кандидата от оппозиции - в пользу себя. Если так или иначе консерваторы с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об объединении сил и пойдут единым фронтом, то они с большой долей вероятности победят демократа Ли Чжэ Мена, а если нет, то выборы превратятся в непредсказуемую рулетку.

В любом случае развязка настанет уже достаточно скоро. Сами выборы пройдут 9 марта, в ночь с 9-го на 10-е станет известно имя победителя, а церемония инаугураци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ится 9 мая.

А что же Мун Чжэ Ин?

Про президентов в Корее уже давно шутят, что у них "одна из самых опасных профессий", так как многих из них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достаточно скоро начинают вызывать на допросы, после которых в итоге они отправляются за решетку. Так было с экс-президентами Чон Ду Хваном, Ро Дэ У, Ли Мен Баком и Пак Кын

Хе. Стоит также вспомнить, что Пак Чжон Хи застрелил его подчиненный, а экс-президент Но Му Хен покончил с собой, когда к нему направлялись следователи. Несколько менее известных лидеров снимали с пос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енных переворотов. Так что,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историю, то после ухода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у вряд ли удастся сразу расслабиться.

Сложно сказать, какая судьба уготована Муну, учитывая достаточно воинственные заявления того же Юн Сок Еля, но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нынешний президент остается весьма популярным. Сейчас его рейтинг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40 процентов, уже давно находясь на этом уровне, что является, пожалуй,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всю политическую историю Южной Кореи, если сравнивать рейтинги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под конец правления.

Сам же 69-летний Мун выглядит бодро, полон сил и сумел избежать синдрома "хромой утки", который настигал многих предыдущих президентов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нахождения на посту. Если верить Муну, то он намерен тихо жить, поселившись в загородном доме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22만6162명 확정

18대 대선 대비 1.7% 증가, 19대 대선 대비 23.2% 감소

재외투표는 2월 23~28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78개 재외공관서 실시

(3면의 계속)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기간 개시 일 전에 귀국한 경우,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선거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위에 신고하면 3월 9일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며,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위에 보내 3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개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권자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적극적으로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역대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자 수 >

(단위 : 명)

구 분	제20대 대선 (22. 3. 9.)	제21대 국선 (20. 4. 15.)	제19대 대선 (17. 5. 9.)	제20대 국선 (16. 4. 13.)	제18대 대선 (12. 12. 19.)
인원수	226,162명	171,959명	294,633명	154,217명	222,389명

역대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자 수 (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동포신문)

[日강제동원위 11년사] ① '35자' 이름도 긴 '역사전쟁 야전부대'

2004~2015년 한국정부 차원 진상규명 전담기구 역할 수행

日 산업유산 등재 등 사안서 활약

'한시 조직' 한계로 폐지

(전호의 계속)

진상규명에 필요한 각종 자료 입수도 위원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국가 기록원 등 국내 기관에서 잠자던 자료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와 직접 외교협상을 벌여 공탁금 명부, 후생연금 명부 등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측 중요 기록을 다수 받기도 했다.

◇ '시한부 조직' 태생적 한계... 산적인 과제 남기고 폐지

강제동원위원회는 다루는 사안의 규모에 비해 짧은 활동 연한이 법으로 정해진 한시조직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6개월 이내 범위에서 1~2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활용하고, 몇 차례 법 개정으로 활동기간을 늘렸으나 결국 산적인 미결과제를 남긴 채 2015년 12월 문을 닫았다. 새로운 자료가 지속적으로 입수돼 강제동원 진상에 한층 더 정확히 다가갈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이었다. 일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한국 정부와 국회에 위원회 존속을 탄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 폐지 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업무를 넘겨받았고, 행안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학술연구·조사, 희생자 추도사업 등 과거 위원회 기능을 소관 업무로 뒀다.

그러나 행안부 지원단은 간부 등 소속 공무원이 인사철이면 바뀌기 일쑤여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재단의 진상규명 사업은 민간 연구자들에게 용역을 주는 수준이라서 이전 위원회가 수행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와는 대외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정식 결정

사도광산 역사

- 1601년 금역발견 이후 에도시대에 중요한 자원역할
- 1896년 미쓰비시 합자회사 인수
- 1918년 미쓰비시 광업주식회사 관리권 인수
- 1939년 이후 조선인 1,200~2,000명 강제 동원 본격화
- 1942~45년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 물자 확보에 활용
- 1989년~ 폐광 후 현재 관광지로 운영 중

일본 정부 세계유산 추천절차

문화심의회 추천후보 선정 → 세계유산조약 관계부처 연락회의 결정 → 각의결정 (우리나라 국무회의 의결)

장성구·김영은 기자 20220201

적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전직 위원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전히 피해조사와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많지만, 위원회 폐지 이후 관련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영동한 곳을 찾아가기도 한다. 현재 활동 중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규명 신청이 2천여건 접수됐으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각하 대상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도 강제동원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추가 피해조사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이스라엘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조사기구이자 희생자 추모시설인 '야드 바셈'(Yad Bashem, 이름을 기억하라)을 1953년부터 상설 정부기관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

(끝)
(연합뉴스)

[우리말로 깨닫다]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다'라는 말은 물론 한자 친(親)에 '하다'가 붙은 말입니다. 저는 1음절 한자에 '하다'가 붙는 말을 볼 때마다 우리말에 한자가 폭넓게 들어와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친이라는 말은 혼자서 쓰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하다는 반대말은 한자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만들어 쓰자면 '혐(嫌)하다' 정도를 쓸 수 있을까요? 아무튼 반대말이 없는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말은 가능하면 만들지 않고,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쓰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 아닌가요?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친'이 들어가는 말은 다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친의 기본적인 의미가 가깝다는 의미니까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친하다는 말은 이런 느낌의 시작점입니다. 다른 단어도 생각해 볼까요? 친하니까 친구(親舊)이고 친척(親戚)입니다. 친밀하고 친숙하며 친절하다는 말에서 정을 느끼게도 됩니다. '친'이 들어가는 표현을 많이 쓰며 살면 좋겠습니다. '친'을 쓰면서 가까운 사람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친'은 또한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친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닮았다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닮았다는 말은 가깝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가까우니까 닮는 것이겠죠. 아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은 많지만 '친'이 붙으면 그야말로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친형제와 아는 형은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친'이 붙으면 물보다 진한 사이라는 말입니다. 친형제와 잘 지내야겠습니다. 물만도 못한 피도 많습니. 형제간의 다툼은 불효의 시작입니다.

사실 친 중의 친은 부모님입니다. 나랑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닮은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은 양친(兩親)이라고 합니다. 나누어 말하면 모친(母親)과 부친(父親)이 됩니다. 친어머니, 친아버지, 친형, 친언니, 친누나, 친오빠, 친동생의 무게와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요문 중에서 부자유친에도 친이 보이네요. 이때 친도 단순히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더 가까워야 합니다.

이런 '친'이 종종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가장 나쁘게 쓰이는 말이 친일입니다. 친일에 파까지 붙으면 상충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친북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북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시작점은 친북입니다. 친미나 친중도 관점에 따라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 됩니다. 요즘엔 정치에도 '친'이 쓰입니다. 친노, 친박, 친이, 친문 등으로 쓰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 표현들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쁜 일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친은 원래 좋은 것인데 말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있으며, 서로 닮아가려고 하는 사이인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친이라는 말이 문제가 될 때마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한 게 왜 잘못일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친해서 싸우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일 텐데 친하다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친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이겠죠. 친은 싸우지 말자는 것이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류나 외교를 이야기하면서 친한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외국인도 친한파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친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친한파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한파뿐 아니라 모든 친이 좋은 관계이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의미이고 따뜻한 느낌이 바랍니다.

어찌 친이 나쁠까요. 저는 매국이라는 표현과 친일이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되어 친의 의미가 타락한 것이라고 봅니다. 매국은 매국으로 쓰고 친일은 좋은 의미로 쓸 수 있기 바랍니다. 일본과 친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일까요? 특히 친한은 좋다고 하면서 친일이나 친중이나 친미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친'이 아닌데 그들이 '친'일 리가 없습니다.

혐하다는 말은 없는데, 세상에 온갖 저주의 말, 상처의 말, 혐오의 말이 난무합니다. 혐한이 생기고 혐일, 혐중이 생깁니다. 미워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친(親)은 평화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그는 옥사나 코르니엔코에게 센터 개설 증명서와 대통령 도서관 기금에 플래시 드라이브 형태의 전자 액세스 키를 선물했다. "이제 우리 독자들은 러시아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만들고 에세이와 보고서를 쓰고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자료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샤희린주 대통령의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비디오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옥사나 코르니엔코 사할린주 아동도서관장 대행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도서관은 러시아 연방과 해외에 85개 모든 구성 기관에 1,300개가 넘는 원격 센터를 개설했다.

Детский центр удаленного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ресурсам президен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имени Ельцина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провели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электронного читального зала ельцин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иректора двух областных библиотек – дл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 Валентина Малышева и Оксана Корниенко, вместе перерезав символическую красную ленту. – Новый центр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детям и подросткам с помощью современных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

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подлин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старинными рукописями, редкими книгами, видеохроникой,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более полно изучить историю России, - 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алентина Малышева.

Она вручила Оксане Корниенко сертификат об открытии центра и электронный ключ доступа в виде флешки к фондам президен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Теперь наши читатели с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более полно узнать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но и примен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при создании проектов, написании рефератов и докладов, подготовке к Олимпиадам. Посетить видеозанятия,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т президен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 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Оксана Корниенко

Ранее президен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открыла более 1300 центров удаленного доступа во всех 85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а рубежом.

Сахалин주, 2021년의 명목 임금 인상, 실질적 임금은 하락

2020년 대비 2021년 사할린주 산업생산지수 하락폭이 10%를 웃도는 등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88.8%에 불과했다. 사할린주통계국은 2020년 감소율이 2019년 대비 96.9%라고 밝혔다.

자동차 화물수송량은 2021년 km당 1억8천230만톤으로 2020년 대비 20.8% 증가할 정도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농산물 및 소매업 거래액은 각각 1.4%, 1.3%씩 증가했다.

2021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수치보다 5.2% 증가했다. 명목상 임금은 2.8% 인상됐지만 오히려 실질적 임금은 2.2%나 줄어든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식적으로는 1700명이 사할린주의 실직자이다. 2021년 실직자 수는 2020년 대비 17.3% 감소했다.

Номинальная зарпла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1 год выросла, а реальная - упала


Падение индекса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1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0 годом превышает 10%: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88,8% к предыдущему. Темпы снижения растут, показатель 2020 года составлял 96,9% к 2019 году,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Сахалинстата.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показал грузооборот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2021 году его показатель зафиксирован на уровне 182,3 млн. т на километр, что на 20,8% выше, чем в 2020 году.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данным, показали продукц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борот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1,4 и 1,3%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2021 года превысил показатели 2020 года на 5,2%. Рост номин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оставил 2,8%, однако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реальная оплата труда, наоборот, уменьшилась на 2,2%. Официально безработны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ислятся 1,7 тыс. человек. В 2021 году их стало меньше на 17,3%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0 годом.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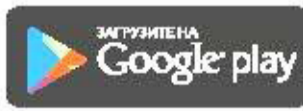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bilet.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